

존 오스왈트 박사, 킹스, 세션 4

열왕기상 2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만나서 반가워. 오늘 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2장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을 날이 다가오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남자답게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지키라.

그에게 순종하며 행하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의 율례와 계명과 율례와 율례를 지키라. 그렇다면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지시를 따르려면 힘과 남자다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해지세요. 남자처럼 행동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켜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종류의 지시가 주어졌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 데 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항상 가장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추구합시다. 왜 하나님의 길로 걷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인기가 없어요.

또 뭐야? 규율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추적해 보겠습니다. 징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말은, 그냥 통나무에서 떨어지면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길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다섯 번째 기둥이 있습니다. 반면에 내 방식은, 아, 그거 좋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바로 그 저항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분적으로 규율에 의해 처리됩니다. 좋아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길로 걷고 싶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하기 위해 영적인 근육을 단련할 것입니다. 하지만 운동은 결코 재미가 없습니다. 나는 항상 내가 수년 전에 보았던 그 대사를 항상 좋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웃는 조깅하는 사람을 보면 조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요, 일이에요. 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반복되는 말씀, 그분의 법령, 그분의 명령, 그분의 율법, 그분의 규정을 주목합니다. 구약성경에는 계속해서 그런 반복이 나옵니다. 요점을 밝히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명령이나 법령, 법을 들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아니, 아니,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무엇이든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또 문제는 우리 관계다. 내가 참으로 구속함을 받은 기쁨 속에 살고 있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이것을하기를 원하신다.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것이 우리 삶에서 성령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명령이 될 필요가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의 욕망은 나의 욕망입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랑의 반응입니다. 노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걸어보세요.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경을 통해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걷는 것입니다. 이는 진전을 의미합니다. 이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대시는 아닙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산책입니다. 한 발이 다른 발 앞에 있습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중국 속담을 아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그래서 늙은 다윗이 그의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3절에 이어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입니다. 자, 그 히브리어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많은 히브리어 단어와 마찬가지로 이 단어에도 폭넓은 의미의 풀이 있습니다.

2,000단어밖에 없습니다. 2,000단어만 말하면 안 되지만 다른 방식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2,000개의 히브리어 어휘가 있다면 사전 없이 구약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5,000 단어의 어휘가 없으면 영어로 된 어떤 것도 읽을 수 없습니다. 제2외국어라면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히브리어 단어에는 많은 영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례적으로 번영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지혜롭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효과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것이 사용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는 번영을 물질적, 물질적, 경제적 측면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런 식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명하고 효과적이며 성공하십시오. 네, 전부요.

자, 왜 그럴까요? 그래서 잠시 백업하자면, 우리는 가끔은 많이 듣지 못하지만 때로는 그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의 계획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대하고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 질문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강하고 담대하고 결단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당신은 성공할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보증인가요? 그것은 하나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성공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더 큰 맥락에서. 그렇다면 어떨까요? 보증인가요? 손을 들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입니다. Bing, ifs도, ands도, buts도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글썄요, 성공에 대한 좁은 해석이 내 인생에서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내 기준대로, 내 기대대로, 내 욕망대로 성공한다면 그다지 많지는 않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다면 당신은 성공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대로 성공할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것에 따라 성공할 것입니다. 예.

예. 예. 그러면 당신과 내가 번영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속에.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세상에 관한 한 실패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역사하셨고 그들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나는 Amy Carmichael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에이미 카마이클(Amy Carmichael)은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부적응자였습니다. 그녀는 단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18, 19세) 선교사로서 인도 전체의 통치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긴 드레스, 높은 칼라,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뷔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에이미 카마이클은 평상복 차림으로 주지사가 들어올 때 조랑말을 타고 인사를 나갔습니다. 이런. 그녀는 기본적으로 느슨해졌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집에 가거나 스스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갔다. 그리고 그녀는 인도 소녀들의 운명에 대해 매우 깊은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고아 또는 원치 않는 소녀. 종종 원치 않는 여자 아기가 쓰레기 더미에 버려져 죽도록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소녀가 살아남으면 그녀는 성전 창녀가 되었습니다.

에이미 카마이클(Amy Carmichael)은 이 소녀들을 위한 집을 개발했습니다. 그녀가 52세였을 때, 모든 것이 번영했고 사람들이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동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을 보러 나갔습니다.

노동자는 참호를 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거기에 빠져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몇 주 동안 누워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20년 동안 침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일이 다른 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관절염에 걸려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맙소사,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번영하고 있습니다. 그 20년 동안 그녀는 30권의 책을 썼습니다.

경건의 깊이가 반짝이는 30권의 책. 만약 하나님께서 그녀를 치료해주셨다면 결코 쓰여지지 않았을 책들. 나는 수년 동안 내가 우러러보았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아픈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부모라고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아이가 아프기를 바라시나요? 당연히 아니지.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아침에 스쿨버스가 기차에 치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아이에게 너무 빨리 독감에 걸리면 머리가 어질어질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때때로 성공에 대한 우리의 정의, 번영에 대한 정의는 그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걸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자로서, 여자로서 순종하며 걸어갈 것입니까? 그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용기 있게 확신했습니다. 반드시 내가 지시하는 방식이나 내가 이해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좋습니다. 4절입니다. 이제 40명 정도 남았습니다.

네 자손이 생활 방식을 지켜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앞에서 충실히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제가 여기서 말했듯이, 저는 우리가 그 네 구절에 대해 꽤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다음 단계에 대해 그렇게 편안하다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행한 일,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에게 행한 일을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이드로의 장손이자 넬의 아들 아브넬. 그는 평시에도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듯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허리띠와 발의 신을 더럽혔습니다. 당신의 지혜대로 그를 대하십시오. 그러나 그의 백발이 평안히 음부로 내려가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요압은 누구였습니까? 요압은 40년 동안 다윗의 장군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죽기까지 옹호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인자였던 남자, 데이빗. 그러면 충성을 이렇게 대하는 겁니까? 당신은 아들에게 그를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흠, 무슨 일이야? 음, 우선 Abner가 있습니다. 다윗은 유대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에 의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그의 병사이자 장군이었습니다.

북쪽 10지파에서는 장군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중 한 사람인 수치스러운 사람 이스 보셋을 데려갔습니다. 아마도 그의 이름은 바알의 사람 이스 바알 이었고 그 아들을 왕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상승세에 있고 이스 보셋 이 하락세에 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자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다윗아, 원하시면 그 10지파를 당신에게 데려오겠습니다.

그러자 David는 "그래,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요압은 멀리 있습니다. 요압은 집에 돌아와 아브넬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를 떠나도록 허락합니다.

요압이 왕에게 가서 이르되 왕이 무슨 일을 하였나이까 늙은 아브넬이 당신에게 왔습니다. 왜 그를 보내어 사라지게 하였습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너희를 속이고 너희가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을 알고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을 알고자 함이니라. 요압이 다윗 앞에서 나올 때에 아브넬을 따라 사자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시라의 누이에게서 데려오매

데이빗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요압은 그와 조용히 이야기하려고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서 그의 배를 쳐서 그의 동생 아사헬의 피를 인하여 죽였습니다.

아사헬 세 형제입니다. 이전 전투에서 아브넬과 북쪽 군대는 후퇴하고 도망가고 있었고, 아사헬은 아브넬을 뒤쫓았지만 그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Abner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돌아가서 집에 가거라. 이러지 마."

그 사람이 계속 그를 쫓아오므로 아브넬이 그를 죽였습니다. 요압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라

이 일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돌아갈지어다.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른 장군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요압의 사촌인 아마사를 그의 장군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그는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성경이 이렇게 훌륭하고 훌륭한 문학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성경에 18파운드의 머리카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가 그것을 꽤 자랑스러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에서 다윗은 그의 군사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숲속을 지나가다가 그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리고 노새는 계속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요압에게 달려옵니다. 저기, 압살롬이 저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요압이 이르되 네가 그를 죽였느냐? 그를 죽여? 아니요, 왕은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압이 가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데이비드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방금 파괴되었습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첫날 밤에 데이비드가 자신의 가족에 관해 결단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는 단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울고 있어요, 그는 울고 있어요. 그리고 군인들은 모두 정의롭습니다. 그들은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와서 이르되 보라 네가 그리로

내려가서 성문에 앉아 너희의 승리한 군사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해질녘까지 너희에게 군대가 없게 되리라 하더라.

바로 요압입니다. 바로 데이비드입니다. 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위해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은 반역자야, 데이빗. 그 사람은 반역자예요, 맏소사. 내가 당신을 위해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반란군은 패배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유다는 계속 멀어질 것입니까? 그들은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까? 북쪽 부족들은 그래, 그래, 그는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와 함께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유다 장로들에게 이르기를 온 이스라엘의 말이 북편 지파들을 가리켜 왕에게 이르렀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맨 나중에 왕을 그의 집으로 모셔들이려 하느냐? 너희는 나의 형제요, 나의 뼈와 살이다.

그러면 왜 당신이 왕을 다시 모셔오는 마지막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뼈와 살이 아니냐? 하나님이며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아들 압살롬을 잔인하게 죽인 요압 대신에 당신이 이제부터 내 군대의 사령관이 되지 않으신다면 말입니다. 아마사야, 누가 유다를 나에게 다시 데려올 수 있겠느냐?

이 아마사가 한 사람처럼 유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왕께 전갈을 보내어 왕과 왕의 모든 신하를 다 돌려보내게 하매 그래서 왕은 요단으로 돌아왔고, 유다는 왕을 맞이하고 왕을 요단으로 건너가려고 길갈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자손인 베냐민 출신의 삼매라는 사람이 북쪽 지파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마사에게 전갈을 보냅니다. 좋습니다. 군대를 모아 그를 쫓으십시오. 글썄요, 아마사가 늦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의 형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삼매가 북쪽 왕국 전체를 앗아가기 전에 당신은 군대를 데리고 빨리 삼매를 잡으러 가십시오. 요압이 아니라 요압의 동생 아비새입니다. 아마사는 며칠 늦게 나타나다.

그들이 기브온 큰 돌 앞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그들을 맞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군인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군인입니다. 그 위에는 허리띠를 두르고 칼집에 칼을 꽂아 그의 허벅지에 차고 있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떨어졌습니다.

자, 그 수단이 땅에 떨어졌든, 그의 손에 떨어졌든, 나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내 형님, 당신은 잘 계시는지 물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 사람은 사촌이에요. 요압은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아마사는 칼이 요압의 손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요압은 그것으로 그의 배를 쳤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는 두 번째 타격도 입히지 않고 내장을 땅에 쏟아 붓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두 군대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야벳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의 아들들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바르실래는 압살롬의 반역 중에 도망하는 동안 그들에게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는 박가룸 출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당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갔던 날에 나를 향하여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렇다, 다윗이 도망하고 있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 동네를 떠나면 압살롬이 온다. 사울의 집에 속한 사람이 왔으니 그의 이름은 게라의 아들이요 시므이라. 그리고 그가 와서 계속 저주했습니다.

그는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와 모든 백성과 그의 좌우에 있는 모든 용사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내 말은, 그 사람은 돌을 가진 빠른 사람임에 틀림없었다는 거죠. 시므이는 저주하면서 말했습니다. 피를 흘리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아, 나가라, 나가라.

여호와께서는 사울 가문의 모든 피를 당신에게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나라를 당신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보라, 네 악이 네게 임하였으니 너는 피를 흘린 사람이니라.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왕께 물었습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내가 가서 그의 머리를 떼어내도록 할게요.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다 하여 그가 저주하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을 왜 죽였느냐고 말할 것입니까? 저는 여기서도 David에 매료되었습니다. 글썄요, 그것은 주님에게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밧세바와 우리아, 그리고 그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비극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주님의 일일 것입니다. 그를 만지지 마세요, 그를 만지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시므이가 나옵니다. 아, 달콤하고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해서 미안해, 데이빗. 그래서 아비새는 "그래, 알았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대신하여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서 그를 데려오도록 해주세요. 다윗이 이르되 너희 스루야 자손들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날 나와 대적하느냐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왕이 된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다시 왕좌에 오른 첫날인 이번 일로 우리는 유혈 사태를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강을 건너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유혈 사태를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그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를 결백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회색 머리를 피에 젖은 무덤으로 가져 오십시오. 알았어, 알았어.

이것은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다윗이 아닙니다. 시므이가 오면 은혜를 베푸는 다윗이 아닙니다.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상태에 관해 첫 번째 장에서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확실히 어느 정도 치매를 앓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날에는 과거에 우리에게 행해진 일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나쁜 날이 올 때 거품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성경의 아름다움입니다. 영웅을 희화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모든 선함과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그들의 약점과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문제는 내가 내 직감에 무엇을 허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키우고 있는가? 그런데 특히 요압의 경우에는 이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바로 그 것입니다. 그는 이 관참은 두 사람을 배신하여 죽였습니다. 그분은 마치 전쟁을 하듯이 그들을 평화롭게 대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입니다. 이것은 살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질문은 그렇다면 왜 다윗을 기다리면서 당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짐을 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몇 년 동안 데이비드의 영혼 속에 어떤 것들이 끓어오르고 있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그가 더 이상 자신의 정신적 능력을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들은 가버립니다. 여기 그들이 온다.

그러면 샨마이는 어떻습니까? 매우 중요한 의미에서 요압에게 일어난 일은 마땅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삼마이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삼마이는 무엇을 했나요? 그는 누구를 저주했나요?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 이것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무엇을 하기를 거부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내 손을 대지 아니하리니 자,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Danny는 찬송가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에게 계속 묻습니다. 요점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만일 삼매의 죽음이 사실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했기 때문이라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첫째,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는 결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해. 나는 동의한다.

하지만 내 마음 속에는 여전히 질문이 있습니다. 그가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나도 그를 존경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나는 당신에 대해 모르지만 어떤 곳에서는 일요일 점심에 구운 설교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그 사람은 우리가 좋아하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칠지 모르지만 주님의 기름부음받은 사람을 무심코, 가볍게, 파괴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말하리요? 그리고 나는 그것이 단지 설교자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쉽게, 얼마나 쉽게 우리가 서로를 무너뜨리는지.

아, 서로 얼굴에는 안 돼요. 아니 아니. 그러나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러니 무릎 부분을 잘라서 우리 수준까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럼 불편한 주제를 떠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학개의 아들 아도니야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로 갔다. 밧세바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평안히 오십니까?” 그는 평화롭게 대답했습니다. 이어 그는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고 덧붙였다.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왕국은 내 것이었습니다. 아, 온 이스라엘이 나를 왕으로 여겼느니라.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 왕은 내 동생에게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거 좋네요.

이제 당신에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위대하지 않은가? 당신은 해낼 수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솔로몬 왕에게 물어 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왜 밧세바로 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에게 아내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내 질문은 여기 있는 솔로몬의 요청이 아도니야와 그의 성품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입증해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변덕쟁이. 변덕쟁이, 응.

시프티, 그거 좋네.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멍청한.

그는 데이비드와 마지막 시간을 보낸 소녀와 결혼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다윗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우리가 들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아도니야에게 무엇을 하지 않았나요? 그는 결코 그녀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그 소년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그에게 '왜 이러는 거죠?'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다면 그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또한 Mike가 말했듯이 일종의 교활함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데이빗의 마지막 배우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다면. 이제 여기서도 밋세바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밋세바는 “내가 당신을 위해 왕께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니면 그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교활한 걸까요? 그녀는 이 행동의 의미와 솔로몬이 이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렘은 여성의 평생이 자녀에게 달려있는 끔찍한 음모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 사이의 음모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 아라비아의 하렘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아도니아의 요청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신과 나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아도니아의 행동은 당신과 나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귀하의 요청 중 일부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하고, 다른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정말 무엇을 묻고 있는 걸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성격, 우리가 누구인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밋세바는 솔로몬 왕에게 가서 아도니아를 위해 말하였습니다. 왕이 일어나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절하고 왕좌에 앉고 왕의 어머니를 위하여 왕좌를 베푸니라.

그녀는 그분의 오른편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작은 부탁이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왕이 대답하여, 내 어머니로 삼아라. 나는 당신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네 형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주어라. 카봄! 왜 아도니아를 위해 수넴 여자 아비삭을 요청합니까? 당신은 그를 위해 왕국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는 내 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자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상당히 희미한 전구이거나 아마도 이것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시 한 번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은 처음에 아도니아에게 매우 관대했습니다. 1장의 끝 부분에 있었습니다.

네가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나의 주요 라이벌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해요, 정확해요.

그리고 나는 다시 한 번 아도니아가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칼날 위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본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깨끗한 마음, 하나님의 길에 대한 순수한 열망, 진정으로 행복한 길에서 자라납니까?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아도니아가 그 요구에 대하여 자기 생명으로 갚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고 벌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내 생각에 솔로몬은 무엇을 바랐든 이제 아도니아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왕국을 되찾기 위해 평생 동안 계속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실행 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을 내려 아도니아를 쳐 죽였느니라. 브나야는 이곳 전체의 집행자입니다. 그는 장군이 될 것이고 장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아비아달아, 여기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바로 그 밑에 요압과 아비아달입니다. 요압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아비아타르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돼? 그는 여호와께로부터 난 제사장이었습니다. 여기 주님의 기름부음받은 자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보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주요 공모자가 있다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자살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도니아, 이런 어리석은 요구를.

요압은 피흘린 죄를 지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라이벌이기 때문에 주로 살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비아달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단순히 승자가 패자를 몰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 일을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Abiathar는 패배한 그룹의 일원이 되는 것 외에는 자신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말하는 것은 솔로몬이고 여러분은 내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나도 솔로몬을 완전히 씻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나는 솔로몬이 신실하고 현명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33절을 내려가서 33절을 보십시오.

아브넬과 아마사의 피를 흘린 죄가 요압과 그의 자손의 머리로 영원히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의 평강이 영원히 있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구약에서 유혈 사태의 피할 수 없는 영향을 인식해야 합니다. 창세기 9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는 자는 그 피도 흘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피로 대표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생명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흘린 피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신약성경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요압이 무죄한 피를 흘렸으니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자 왕은 시므이를 불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이 이야기는 정말 매력적이다.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되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떠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당신의 피가 당신의 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시므이가 왕에게 대답하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 주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종이 행하겠나이다. 시므이는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한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당신의 종들이 가드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하였더니 그럼 그는 무엇을 하나요? 흠, 궁금하네요. 지금 보자. 나는 여기에 남겠다고 했고, 왕은 내가 죽을 것이라고 했고, 그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어-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나귀를 타고 자기 종들을 찾으러 가드에 있는 아기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떠나서 종들을 다시 가드로 데려왔습니다. 그것은 시므이의 성품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 사람은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그 사람 기억력이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다윗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에 대한 묘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수도원 투석기에 갇혔을 때가 아니었나요? 그래요, 매우 짧은 퓨즈를 가진 남자입니다.

충동적인 남자, 성급한 남자.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한계를 정했을 때 그것을 알았습니까? 솔로몬은 시므이의 도화선에 불이 붙어 떠나갈 날이 올 것임을 알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 세 인물 모두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그 인물은 운명입니다. 각각의 경우, 결국에는 누구에게 붙잡힌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결국입니다.

요압의 경우에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대체되지 않는 요압. 나는 다른 누구도 아닌 데이비드의 오른팔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도니아에 대한 그의 지지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도니아가 조종하기 더 쉬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기 있어요. 아무도 내 앞을 가로막지 못할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할 것이고, 내가 원하기 때문에 좋다. 빙고. 폭발적이고 충동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격이 운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노아와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목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용할 수는 없지만 인내는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희망을 낳고, 이 모든 것이 성격을 부여합니다. 어떤 캐릭터를 만들고 있나요? 나는 어떤 캐릭터를 만들고 있나요?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묻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뜻을 거스르는 어떤 일도 바로에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파라오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자신의 보좌에 앉아 "나는 그 히브리인들에 대해 너무 안타까워요"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말로 놓아주어야 하며,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배운 사람입니다. 나는 신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합니다. 글썄, 당신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반대되는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 50대, 60대, 70대 등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는 어린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는 우리 모두에게 '나는 어떤 캐릭터를 만들고 있는가?'라고 묻고 싶다. 어떤 캐릭터를 만들고 있나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에 따라 성품이 반대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직접 만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50년, 60년, 70년이 지나도 그 패턴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도니아의 종말, 요압의 종말, 수마의 종말처럼 끝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부인. 음, 캐릭터. 예.

정확히 무슨 뜻인지 좀 헷갈리네요. 내 말은, 음, 성격은 우리가 내린 선택의 총합인가요? 상당한 정도. 온라인상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격은 우리가 내린 모든 선택의 총합인가요? 그리고 내 대답은 대체로 '그렇다'입니다. 내가 자제력을 갖고 내 길을 계속해서 선택한다면 나는 나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 올 때 우리는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이끄는 또 다른 연속적인 선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해요, 정확해요. 구원이 오면 우리는 우리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또 다른 선택의 연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은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하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진실함에 감사드립니다. 그 생생함과 힘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배울 교훈을 주시고 진리를 동화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그 페이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당신의 얼굴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아멘.